

석유화학, 유가 급등으로 “비상”

두바이유, 3대 유가 중 상승폭 최대 ... 석유화학은 공급과잉 겹쳐

국내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동산 원유의 도입가격에 기준이 되는 두바이(Dubai)유가 세계 3대 유가 가운데 2006년 들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유가 다른 유가보다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유가 상승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담을 느끼지만 원유 수입의 70-8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부담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15일 두바이유의 2006년 평균 현물가격은 배럴당 61.98달러로 2005년 평균가격 49.37달러에 비해 12.61달러 올랐다.

Brent유의 2006년 평균 현물가격은 66.17달러로 2005년보다 11.87달러 상승했고 미국 WTI(서부텍사스 중질유)의 2006년 평균 현물가격은 67.38달러로 2005년에 비해 10.92달러 상승했다.

또 하루 거래 가격 기준으로 7월15일 두바이유의 현물가격은 배럴당 71.96달러로 2005년말 53.49달러보다 18.47달러 상승했다.

이에 비해 Brent유의 7월15일 현물가격은 75.87달러로 2005년 말보다 17.54달러 상승했고 WTI는 76.84달러로 2005년 말보다 15.67달러 올라 두바이유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국제 원유시장의 가격 불안 요인들이 중동지역에 집중돼 있는 데다 2005년 들어 이란 핵 문제가 국제유가 형성에 큰 변수가 돼 두바이유 가격의 변동폭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란 핵 문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중동의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두바이유 가격도 쉽사리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바이유가 당분간 배럴당 70달러대 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고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화섬업계는 벤젠(Benzene) 등 석유화학제품의 수급밸런스를 예의주시하면서 원자재 구매선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통상 유가 인상분이 화섬제품에 반영되는데 3개월 이상 걸리지만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설비증설과 맞물린 공급과잉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에 따른 원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일부기업은 영업이익이 2005년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는 등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LG화학은 2/4분기에 매출은 2005년 2/4분기보다 26.6% 증가한 2조2725억원을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은 43.9% 감소한 480억원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19>